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www.kmi.re.kr

발행일 2025년 5월 30일
편집·발행인 조정희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TEL 051-797-4800 **FAX** 051-797-4810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02 국내 항만 주요 동향
 17 국외 항만 주요 동향
 30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국내 항만 주요 동향

- ▶ 부산항만공사(BPA), 선사 대상 환적 지원시스템 설명회 개최
- ▶ 인천항 인천-몽골 간 씨앤레일(Sea&Rail) 확대
- ▶ 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광양항 수출입 지원센터' 운영

국외 항만 주요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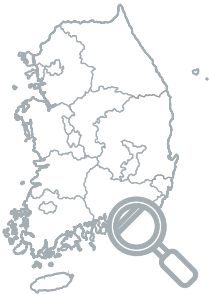
- ▶ 중국, 동남아로의 수출 증가로 4월 수출 증가
- ▶ 중국, 남미 항만-인프라 투자로 곡물 수입망 다변화 추진
- ▶ 북유럽 지역 항만 혼잡 심화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 ▶ '25년 3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 전월 대비 1.7% 감소
- ▶ 미국 관세 여파로 대미 수출 감소세 지속, 자동차·부품 부문 직격탄
- ▶ 중동의 석유화학 사업 영역 확장, 국내 기업에 위협

01 국내 항만 동향

1) 부산항



① 부산항만공사(BPA), 선사 대상 환적 지원시스템 설명회 개최¹⁾

-  BPA는 부산항을 이용하는 선사들을 대상으로 부산항 환적시스템인 환적모니터링시스템 (Port-i)과 환적운송시스템(TSS)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함

 - Port-i는 선박 및 화물 모니터링, 통합 선석스케줄, 실시간 이상 탐지 및 알림 기능을 통해 환적 이상 상황 발생 시 이용자에게 알려 선박 적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임
 - TSS는 타 부두 간 환적 운송 시 다수의 차량과 화물을 묶는 그룹오더 기능을 통해 차량이 최적 화물을 할당받도록 하여 대기시간 감소 및 복화율 증대 등 운송 효율 극대화를 지원하는 시스템임
-  이번 설명회를 통해 부산항 이용 관계자들에게 선박 및 화물 회전을 증대를 통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앞으로도 부산항의 환적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힘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1)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5.05.16.),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33672>(2025.05.20. 검색)

2 신선대부두 입구 확장으로 차량 정체 대폭 개선²⁾

-  BPA와 부산항터미널(주)(이하 BPT)는 신선대컨테이너부두 입구의 도로 폭을 왕복 9차선으로 대폭 확장함
 - 신선대부두는 컨테이너 차량 통행량이 하루 약 5,000여 대로 교통량이 많지만 출입구가 협소하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일반 차량과 부두를 출입하는 컨테이너 차량이 합류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으로 지적되어옴
 - 이에 BPA는 BPT와의 논의를 통해 교통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차량 통행에 불필요한 기둥 등을 모두 없애고 도로 폭을 왕복 9차선으로 확장하고 차선이 잘 보이도록 노면 도색 등을 시행함
-  이번 조치로 교통사고 위험과 차량 병목 현상 등의 문제점 해소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 및 컨테이너부두의 운영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2)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5.05.13.),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33637>(2025.05.20. 검색)

3 BPA, 신항 배후단지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착공³⁾

- BPA는 '27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부산항 신항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4월 30일 착공함**

 - 본 사업은 총사업비 887억 원, 연면적 3만 1천㎡(지상 3층 규모)로 BPA와 해양수산부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임
 - 부산의 물류 ICT 기업인 쿨스 스마트풀필먼트(주)가 스마트 물류 관련 장비 및 시스템을 직접 도입하고, 종합 풀필먼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여 시간 및 비용 절감 등을 통한 효율적인 물류 운영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임**

 -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는 국토교통부가 인증하는 스마트물류센터 인증(1~3등급)을 취득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물류 순환 속도 최대 75% 감소, 작업자 생산성 10% 향상, 비용 약 20% 절감 등 물류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특히, 해당 센터 물량의 약 50% 이상을 중소기업 화물로 처리할 예정임에 따라 부산항을 이용하는 중소형 수출입 기업들의 물류비용 절감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감도



자료: 부산항만공사,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33609>(2025.05.20.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3)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5.04.29.),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33609>(2025.05.20. 검색)

2) 인천항



1 인천-몽골 간 씨앤레일(Sea&Rail) 확대⁴⁾

-  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항에서 출발, 중국의 친황다오(秦皇島, Qinhuangdao)를 거쳐 몽골의 자민우드(Zamyn-Uud)까지 연결되는 몽골횡단철도(TMGR)⁵⁾ 기반 운송 서비스를 본격화한다고 밝힘

 - 인천항-친황다오 간 카페리 노선을 운영 중인 진인해운은 1항차 당 약 50량 규모의 블럭 트레인(Block Train)⁶⁾ 시범사업을 지난 3월에 완료함
 - 이어서 매주 2회 친황다오에서 출발하는 급행철도를 통해 인천항에서 출발한 컨테이너를 10일 이내에 몽골의 자민우드 지역에 운송하는 서비스를 정식으로 개시함
 - 이는 인천항-친황다오-자민우드 구간에서 기존의 운송 소요일(19일) 대비 크게 단축된 수치임
-  IPA는 중국의 국제 철도 연결망을 활용, 씨앤레일(Sea&rail)⁷⁾ 복합운송 확장을 통해 북방 내륙 운송망이 강화되어 물류 편의성 및 정시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함

 - 아울러 서비스 운영 선사인 진인해운은 중국횡단철도(TCR)를 활용한 인천항-중앙아시아 간 복합운송 역시 확대할 계획이며, 현재 운항 중인 선박 대비 2배 이상 규모의 신조선(3만 톤급)을 '26년 12월 취항해 해상운송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임
 - 한편, '24년 인천항의 카페리 선박 물동량은 44만 4천TEU로 전년 대비 5.6%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진인해운의 TMGR 기반 복합운송 물동량은 6,846TEU로 전년 대비 68.4% 증가, '25년의 경우 1만TEU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4)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5.04.29.),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29953&searchSelect=title&boardKey=217&menuKey=400¤tPageNo=2> (2025.05.16.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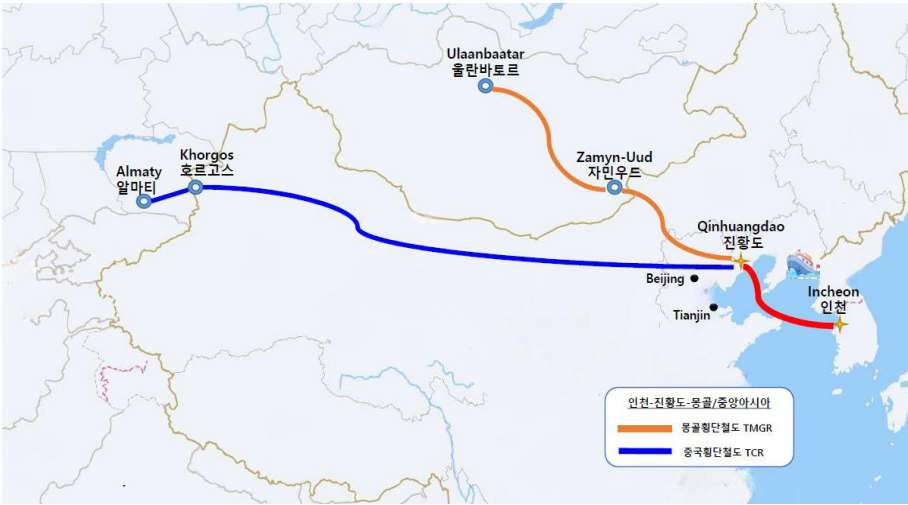
5) 몽골횡단철도(TMGR, Trans-Mongolian Railway) : 중국과 몽골을 연결하는 국제 철도 노선

6) 블럭 트레인(Block Train) : 하나의 출발지에서 하나의 목적지까지 대량 화물을 중간 분할 없이 운송하는 정기 직통 화물열차

7) 씨앤레일(Sea&Rail) : 해상운송과 철도운송을 결합하여 해상의 경제성과 철도의 정시성 등 각 운송수단의 장점을 살린 복합운송방식

01 국내 항만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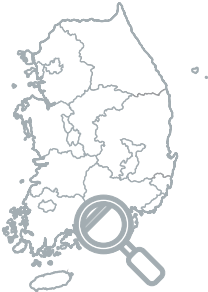
TMGR 및 TCR 기반
물류 흐름도



자료: 인천항만공사(2025.04.29.), KMI 작성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3) 여수·광양항



① 여수항만공사(YGPA), ‘여수·광양항 수출입 지원센터’ 운영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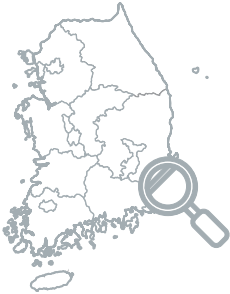
- YGPA는 최근 글로벌 무역 긴장 및 공급망 리스크 등 해운·물류 분야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여수·광양항 수출입 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한다고 5월 3일 밝힘
- 이번 센터 운영은 항만 이용 기업의 안정적인 수출입 활동을 지원하고, 변화하는 대내외 물류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됨
- YGPA는 항만 이용자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수출입 물류 흐름을 원활히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임
- 지원센터는 운영부사장이 총괄하며, ‘선사·운행사 대응반’, ‘화주 지원반’, ‘시장 동향분석반’ 등 3개 전담반으로 구성되며, 총 13명의 인력이 참여하여 각 전담반은 타깃 마케팅, 기업 맞춤형 지원, 현장 애로사항 해소 등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수행할 예정임
- YGPA 관계자는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항만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상생 협력을 통한 신속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 한편, YGPA는 해양수산부 주관 ‘해운물류 통상현안 비상대응반’에 참여하는 등 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통상 리스크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8) 국민일보(2025.05.08.),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8051711&code=61121111&sid1=soc&stg=ws_real\(2025.05.21. 검색\)](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8051711&code=61121111&sid1=soc&stg=ws_real(2025.05.21. 검색))

4) 울산항



1 울산항만공사(UPA), 오드펠터미널코리아와 액체화물 저장시설 확충 업무협약 체결⁹⁾

- UPA는 오드펠터미널코리아(OTK)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업용 탱크터미널 증설을 통해 액체화물 물동량 증대와 에너지 항만 위상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 OTK는 울산항 내 탱크터미널 저장시설 8.8만 kL 증설을 통해, 연간 약 100만 톤 이상의 신규 물동량 창출을 기대하고 있음
- UPA는 OTK 증설 사업에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공동 항만 영업 등 다각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임
- 이번 시설 확충은 에쓰오일의 ‘샤힌 프로젝트’ 완공 이후 예상되는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됨
- UPA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울산항의 에너지 중심축 항만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계획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 울산항만공사, 미 관세정책 대응 고객 간담회 개최¹⁰⁾

- 울산항만공사(UPA)는 미국의 고율 관세 예고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기업 및 유관기관과 함께 간담회를 열어 대응전략을 공유하고 민관공 협력체계를 통해 항만 대응전략을 모색함
- 간담회에는 현대차, SK에너지, HD현대중공업 등 주요 기업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시, 울산세관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해 산업계 애로사항과 대응방안을 논의함
- 한국무역협회는 미국이 자동차·부품·철강에 최대 25% 고율 관세를 예고했으며, 울산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전체 수출의 65%를 차지해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함
- 업계는 조선 부문의 군함 신조 및 MRO 사업을 위한 항만 지원, 자동차 부문의 기상악화 대비 및 장치장 확보, 에너지 부문의 친환경 연료 수요 대응 인프라 확충 필요성 등을 집중 논의함
- UPA는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항만운영 지원방안과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중장기적으로 민관공 협력체계를 통해 인프라 확충을 추진할 계획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9) 연합뉴스(2025.04.21.), <https://www.yna.co.kr/view/AKR20250421126900057?input=1195m>(2025.05.21. 검색)

10) 뉴스1(2025.05.15.), <https://www.news1.kr/local/ulsan/5784324>(2025.05.21. 검색)

5) 평택·당진항



① 현대차, 평택·당진항 인근 10번째 출고센터 내년 준공 예정¹¹⁾

◆ 현대자동차가 포승지구에 국내 10번째 지역출고센터를 설립하기로 함

- 지난 2월 평택시·경기경제자유구역청과 협약을 맺고 올해 하반기부터 총 2,065억 원을 투자하여 '26년 하반기 준공 예정임
- 이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남양·시흥·신갈에 이은 네 번째 출고센터로, 직접 출고를 원하는 고객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임

◆ 신규 출고센터는 입지적 장점과 항만 인접성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됨

- 익산평택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교통시설에 인접해 수도권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뛰어남
- 국내 최대 자동차 수입항인 평택·당진항에 인접해 있어, 현대차의 글로벌 생산시설 간 효율성 제고 및 해외 공장 활용 전략에 유리한 위치임
- 현대차는 최근 중국 베이징 공장에서 생산한 '쏘나타 택시'를 국내 시장에 유통하는 등 글로벌 차원의 생산 효율화를 추진 중임

◆ 현대차그룹은 평택·당진항 활용도 제고를 위한 종합적 투자를 지속하고 있음

- 현대모비스는 '23년 1,540억 원을 투자해 포승지구에 자동차용 모듈 생산시설을 조성했으며, 현대글로벌비스는 '17년 평택항에 자동차전용부두를 완공함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11) 헤럴드경제(2025.05.13.),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486376?ref=naver>(2025.05.22. 검색)

6) 포항항



① 포항철강산업단지, 1분기 생산 및 수출 실적 감소¹²⁾

- ◆ 국내 제조업 전반의 침체와 함께, 포항철강산업단지의 1분기 생산 실적은 연간 계획 대비 저조한 수준을 기록했으며, 수출 또한 소폭 감소한 실적을 나타냄
- 국내 주력 산업의 침체, 건설경기 부진, 수출 환경 악화 등으로 1분기 철강재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11.8% 감소한 3조 4,548억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연간 계획인 15조 6,003억 원의 89%에 그친 수준임
- 철강재 수출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한 8억 4,48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글로벌 수요 둔화, 중국발 공급 과잉 및 가격 경쟁 심화, 미국 보호무역 정책 강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조성현 전문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12) 철강금속신문(2025.05.21.), <https://pdf.snmnews.com/PDF/REAL/2025/05/19/PS010519010100201B0001.pdf>(2025.05.21. 검색)

7) 동해·묵호항



①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 집중 안전점검¹³⁾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국제여객선 이용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함

- 이번 점검은 정부가 추진 중인 ‘2025년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4.14.~6.13.)’의 일환으로, 5월 13일에 전기 및 소방 분야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건축물의 시설 안전에 대해 점검을 진행함
- 특히, 국제여객선 승·하선 시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하여, 다중 인파 사고를 예방하고자 터미널 내 통로와 대피로의 적정성 등도 중점적으로 점검함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위험요소 및 잠재적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상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임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② 동해항, 해경·해군 선박 공동 수리센터 건립 추진¹⁴⁾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해군 제1함대사령부는 함정과 군함을 공동으로 수리할 수 있는 ‘스마트정비지원센터 추진 양해각서’를 체결함

- 양 기관은 동해·묵호항의 항만 기능 재배치에 따라, 동해항 내 1만 톤에서 1만 5천 톤급 드라이 도크를 갖춘 정비지원센터의 건립을 추진함
- 센터가 건립되면 동해권 해경과 해군, 해양수산부 등 정부기관 소속 선박의 유지·보수·정비가 가능해져, 중·대형 함정의 정비 소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특히, 동해 해군 군항 인접 부지에 정비시설을 건립할 경우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정비 관련 인력과 가족의 유입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13)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5.05.08.), <https://donghae.mof.go.kr/ko/board.do?menuidx=2536&bbsidx=110270>(2025.05.21. 검색)

14) MBC강원영동(2025.05.01.), <https://www.mbcg.co.kr/post/125053>(2025.05.21. 검색)

8) 목포항



① 목포시, 해상풍력 산업육성을 위한 역량 강화 세미나 개최¹⁵⁾

- 목포시는 5월 21일 풍력산업 관련 기업과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상풍력 산업육성을 위한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함

 - 목포시가 주최하고 (재)녹색에너지연구원과 (사)전남풍력산업협회가 공동 주관하여 에너지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지역 발전 전략을 모색함
 - 아시아·태평양 지역 해상풍력 트렌드, 해상풍력 R&D사업 추진현황,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 등 다양한 주제 발표가 이루어짐
- 목포신항은 해상풍력 특화 항만으로서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으며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음

 - 목포신항 인근 배후단지가 정부의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공급망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국내 해상풍력산업의 핵심 거점 역할이 기대됨
 - 시 관계자는 “목포신항을 중심으로 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항만 인프라 확충, 기업 유치, 전문인력 양성 등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힘
- 목포시는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국가 해상풍력 전문연구기관 지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15) 매일일보(2025.05.22.),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241725>(2025.04.22. 검색)

9) 대산항



①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중대 재해 예방 안전협의체 개최¹⁶⁾

- ❖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은 표지시설 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안전·보건 협의체를 개최하고, 현장 안전관리 강화 및 청렴 문화 확산을 추진함
- 추진 중인 표지시설 사업은 ‘장기 사용으로 노후된 보령 위수수떡등대 개량’, ‘태안군 내 옹도등대 무인화 정비’, ‘당진발전본부 인근 항행 안전을 고려한 항로표지 설계’, ‘노후 표지시설 정비’ 등 8개 사업임
-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업종별 재해 사례 및 법적 준수사항 중심의 안전·보건 교육을 진행하고, 다양한 현장 의견도 수렴함
- 또한,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및 반부패 문화 확산 교육도 병행해 청렴도 인식 제고를 도모함
- 대산청은 이번 협의체를 계기로 관계사들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충남 해역의 해상교통안전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16)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5.04.24.), <https://daesan.mof.go.kr/ko/board.do?menuidx=3019&bbsidx=110101>(2025.05.21. 검색)

10) 군산항



① 군산항 및 새만금항 신항을 포함하는 ‘새만금항’ 지정 방안 확정¹⁷⁾

- 해양수산부는 지난 제131차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양 항만을 포함하는 새로운 국가관리 무역항인 ‘새만금항’을 지정하는 방안을 확정함
 - 새로운 항만분류체계에 따라 군산항의 대외적 공식 명칭은 현재와 같은 ‘군산항’ 기존 새만금신항은 ‘새만금항 신항’으로 하며, 양 항만을 통칭하는 광역항만의 명칭은 ‘새만금항(Saemangeum Port)’으로 불리게 됨
- 해양수산부는 명칭의 변경과 더불어 새만금항 중장기 발전 방안에 대해 ’25년 중 고시되는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임
 - 또한, 군산항은 지속적인 퇴적으로 인해 대형 선박 이용이 제한되는 상황으로 새로운 준설도 매립장을 개발하고 수심 확보 차원의 대규모 준설을 실시, 군산항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임
 - 새만금항 신항의 경우 배후 권역의 기업유치 및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26년 말까지 잡화부두 2선석을 개장하는 한편, ’45년까지 10선석을 개발할 계획임
 - 특히 해당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육성 중인 에너지, 식량 클러스터, 해양관광 등과 관련한 기능이 ’25년 고시 예정인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추가로 반영될 예정임

새만금항의 장래 모습



자료: 해양수산부(2025.05.02.), KMI 작성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17)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5.05.02.),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menuSeq=971&bbsSeq=10&docSeq=61569>(2025.05.16. 검색)

11) 마산항



1 경남 마산자유무역지역 산단 지역,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 선정¹⁸⁾

-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9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에서, 충남 안산부곡, 충북 충주제1산업단지와 함께 경남 마산자유무역지역 산단 지역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로 선정함
 - 정부는 지난 '19년부터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26개의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여 디지털·저탄소화 촉진, 근로·정주 여건 개선, 문화공간 확충을 적극 지원해오고 있음
 - 경남 마산자유무역 국가산업단지는 미래자동차부품 자율제조 공정개선, 미래형 자동차 핵심융합부품 기술혁신 인재양성 사업 등을 추진해 '미래 첨단 자동차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임
 -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3개 지역의 경쟁력강화계획을 보완해 내년 초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확정·고시할 계획임

조성현 전문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1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5.05.09.),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3002\(2025.05.21. 검색\)](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3002(2025.05.21. 검색))

2 창원시, '25년 상반기 마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 추진¹⁹⁾

창원시는 지난 4월 23일 마산항 활성화 및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25년 상반기 마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힘

- 이번 사업은 화주(화물 소유자), 국제물류주선업체(포워더), 해운선사 등을 대상으로 총 2억 5천만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임
- 지원 대상은 '23년 11월 1일부터 '25년 4월 30일까지 마산항을 이용한 화주, 국제물류주선업자,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및 마산항을 통한 화물 운송 시 마창대교 통행료를 납부한 화주임
- 창원시는 '12년 제정된 「마산항 화물유치 보조금 지원조례」를 바탕으로 '23년까지 총 55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왔으며, 지난해에는 13개 업체에 총 5억 원을 지급함
- 이러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마산항 물동량 증가와 항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왔으며, 특히 마산가포신항은 다양한 포트 세일즈 활동과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자동차 수출과 환적화물 유치 성과를 내며 항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창원시는 “마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은 항만물동량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임”이라며, 앞으로도 마산항 이용 촉진을 통해 인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임

조성현 전문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19) 경남연합일보(2025.04.23.), [https://www.gn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1903\(2025.05.21. 검색\)](https://www.gn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1903(2025.05.21. 검색))

02 국외 항만 동향

1) 중국



1 동남아로의 수출 증가로 4월 수출 증가²⁰⁾

- ◆ 4월의 경우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45% 관세 부과로 중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컨테이너선 수가 급격히 감소함
 - 중국 세관 당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월 중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21% 넘게 급감하였으며, 수입도 약 14% 감소함
- ◆ 다만, 중국의 수출이 동남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선적 급증에 힘입어 미국과의 교역 급감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쇄함
 - 4월 중국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8.1% 증감하였으며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0.2% 감소에 그침
 - 특히 중국의 아세안(ASEAN) 대상 수출은 전년 대비 20.8% 급증하여, 3월의 11.6% 증가보다 크게 가속화되었음
- ◆ 한편, 미국과 중국은 5월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간 일부 무역 조치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하면서 중국의 대미 수출이 5월에는 회복될 것으로 기대됨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20) CNBC(2025.05.09.), <https://www.cnbc.com/2025/05/09/chinas-exports-jump-us-tariffs-imports-tumble.html>(2025.05.20. 검색)

2) 아시아

① HD 현대마린솔루션, 싱가포르에 철 해외 물류 거점 설립 계획²¹⁾

- ◆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선박의 유지보수, 수리 및 정비(MRO) 사업의 경쟁력 확보 차원으로 싱가포르에 해외 첫 물류거점 구축을 계획함
 - 기존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설립되는 물류센터를 통해 MRO 사업의 글로벌 전략을 정교화하는 한편, 선박 수리 부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으로 역할 기대함
 - HD 현대마린솔루션에 따르면 해당 물류센터는 '25년 하반기 건설할 예정으로 싱가포르항 인근에 위치, 13,200㎡(약 4,000평) 규모로 13,000개 이상의 부품 및 자재를 보관할 수 있으며, '26년 하반기부터 운영될 계획임
- ◆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싱가포르항 인근에 물류센터를 개발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해당 항만에서 MRO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름
 - 싱가포르항의 경우 세계 최대 컨테이너 환적 항만으로 연간 약 3,700만TEU 규모의 컨테이너를 처리하고 있으며, 유지보수 목적의 입항 선박 역시 증가하고 있음
- ◆ 아울러 회사 측은 부산에도 추가로 물류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라 밝힘
 - 이를 위해 '28년까지 통 483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싱가포르, 부산 이외에 글로벌 물류센터 확보를 위한 별도의 예산 역시 배정할 계획임
 - 이처럼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유지보수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은 친환경 중심으로 변화하는 글로벌 조선, 해운 산업의 흐름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주요 글로벌 해운사의 경우 최근 다중연료(Dual-Fuel) 엔진을 탑재한 선박 도입을 가속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인식됨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21) Business Korea(2025.05.12.), https://www.business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1982#google_vignette(2025.05.23. 검색)

2 AD 포츠 그룹, 이집트 KEZAD 동항만 구역 50년 개발 계약 체결²²⁾

-  AD 포츠 그룹이 이집트 수에즈운하경제구역(SCZONE) 당국과 KEZAD 동항만 구역 개발을 위한 50년 갱신 가능한 사용 수익권 협정을 체결함

 - 지중해 연안 도시 포트사이드 인근 20km² 규모의 산업·물류 구역을 개발·운영하는 계획으로, 첫 번째 단계는 2.8km² 규모로 곧 시작될 예정임
 - 향후 3년간 시장·기술 연구 및 1단계 개발을 위해 총 1억 2천만 달러가 투자될 계획이며, 올해 말까지 건설이 시작될 예정임
-  1단계 개발에는 1.5km 길이의 부두 건설이 포함되며, 향후 다목적 화물터미널이 설치될 가능성이 있음

 - KEZAD 동항만 산업·물류 구역은 동항만과 직접 연결되어 대형 선박 수용이 가능한 심해 항만의 장점과 첨단 도로·운송 시스템과의 연결성을 활용함
 - SCZONE은 455km² 규모로 동항만구역, 동이스마일리아, 서칸타라, 아인소크나 등 4개 산업구역과 6개 항만을 포함하며, 아프리카·아시아·유럽의 교차점에 위치함
-  AD 포츠 그룹은 Hassan Allam Holding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미래 항만 및 산업구역 개발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로 함

 - '24년 12월에는 이집트 홍해 연안의 사파가 터미널 인프라 개발을 위해 Hassan Allam Construction과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 AD 포츠 그룹은 전 세계 50개국 이상에서 34개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550km² 이상의 경제구역을 관리하고 있음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22) Forbes Middle East(2025.05.05.), <https://www.forbesmiddleeast.com/industry/economy/ad-ports-group-expands-into-egypt-with-50-year-deal-to-develop-east-port-said-zone> (2025.05.22.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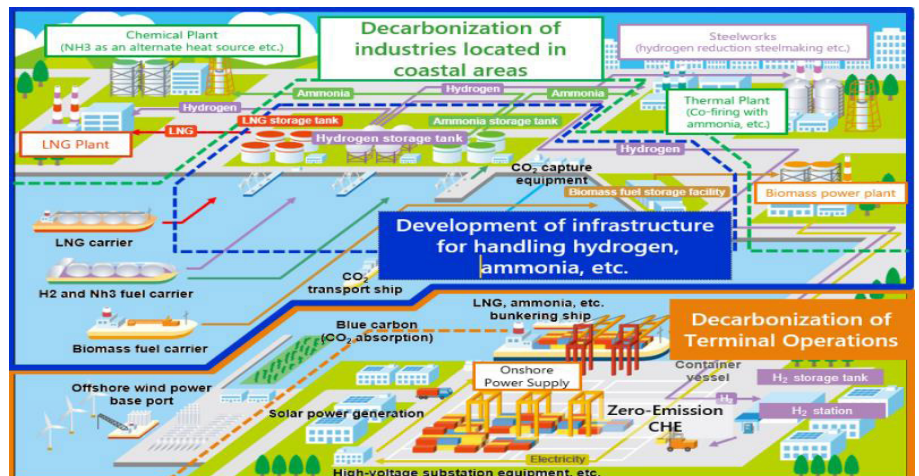
3 일본 국토교통성, ICHCA 총회에서 ‘탄소중립항만(CNP)’ 구상 발표²³⁾

- 일본 국토교통성은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ICHCA²⁴⁾ 총회에서 2050년까지 모든 일본 항만에서 탄소 순 배출 제로(Net Zero)를 달성하기 위한 탄소중립항만(Carbon Neutral Ports, CNP)구상을 발표함

 - 해당 발표에서는 오는 6월 컨테이너 터미널을 대상으로 하는 CNP 인증 제도 도입을 공식적으로 발표함
 - CNP 인증은 각 항만 전체가 아닌, 개별 터미널 단위로 탈탄소화 노력을 평가하며,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할 계획임
- 해당 발표에서는 탈탄소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설명하였으며, 저배출 하역 장비, 터미널의 LED 조명, 무배출 선박 연료, 트럭 예약 시스템이 포함됨

 - 일본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CNP 인증은 1단계에서 5단계까지 다양한 수준으로 구분되며, 각 단계의 세부적인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인증이 부여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이라 밝힘
 - 이후에는 재인증을 신청해야 하며, 이는 탈탄소화 노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 인식, 즉, 항만의 탈탄소화는 단기간에 이뤄질 수 없으며,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발표함
 - 아울러 평가 결과는 모든 항만 사용자에게 공개될 예정이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2050년 탄소 제로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 밝힘

일본의 항만 탈탄소화 구상도



자료: ICHCA(2025.05.20.), KMI 작성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23) ICHCA International(2025.05.20.), <https://www.ichca-news.com/wp-content/uploads/2025/05/250519-CNP-Presentation-by-MLIT-FINAL.pdf>(2025.05.23. 검색)

24) ICHCA : International Cargo Handling Coordination Association

4 인도-파키스탄 간 무역 금지 및 항만 접근 제한으로 해상운송 차질²⁵⁾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도와 파키스탄이 상호 무역 금지 및 항만 제한 조치를 시행함

- 5월 2일 인도 대외무역청(DGFT)이 파키스탄 원산지 또는 수출 물품의 인도 수입을 금지하는 통지를 발표했으며, 5월 3일 직간접 수입 및 경유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함
- 파키스탄 해사부는 인도 국적 선박의 자국 항만 접근을 금지하고, 파키스탄 선박의 인도 항만 기항도 상호 금지함

파키스탄은 5월 4일 추가 무역 제한 조치(SRO 750(I)/2025)를 발표하여 제3국과의 교역에도 제한을 가함

- 인도 원산지 물품의 파키스탄 경유 금지, 제3국이 인도에서 수입한 물품의 경유 금지, 제3국의 대인도 수출 경유 금지 등을 포함함
- 이러한 금지 조치는 5월 4일 이전에 발행된 선하증권(B/L) 및 신용장(LC)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현재 양국 항만은 정상 운영되고 있으나 보안 조치가 강화된 상황임

- 인도의 파키스탄 국경 인근 항만을 포함한 모든 항만이 운영되고 있으며, 선박의 접근·하역·출항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
- 다만 보안 조치가 강화되었고 모든 활동이 당국의 긴밀한 감시하에 있으며, 인도 선원의 승하선에 대한 공식적 제한은 없으나 주의가 필요한 상황임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25) Safety4sea(2025.05.08.), [https://safety4sea.com/india-and-pakistan-exchange-trade-bans-and-port-restrictions/\(2025.05.22. 검색\)](https://safety4sea.com/india-and-pakistan-exchange-trade-bans-and-port-restrictions/(2025.05.22. 검색))

3) 미주



① 파나마 항만 매각 움직임에 중국은 반독점법 조사 카드로 제동²⁶⁾

▶ 파나마 항구를 서방 기업에 매각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중국은 반독점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 홍콩 CK 허치슨 홀딩스는 전 세계 43개 항구를 블랙록 컨소시엄에 매각하려 했으나, 중국과 홍콩 당국의 개입으로 매각 일정이 늦어지거나 중단됨
- 최근 이탈리아 해운 가문에게 파나마 항만만 분리 매각하려는 시도가 나타나면서 중국 시장규제국은 ‘사업자 집중’을 승인 전 실시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법적 책임을 경고함
- 중국 반독점법 제20조는 지분·자산 취득을 통한 지배력 형성을 ‘사업자 집중’으로 정의하고 있음
- 다만, 매각 대상이 파나마 항만 두 곳으로 제한되는 것이 어떻게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음

▶ 중국은 항만 운영권이 미국 영향력으로 넘어가는 것을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항만 매각 전반에 국가보안법 적용 여부까지 조사하겠다는 입장임

- 이탈리아 해운 재벌 아폰테 가문은 파나마 항구 두 곳만 따로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블랙록은 전체 항구 매각 구조를 조율 중임
- 매각 구조는 블랙록이 전체 항구를 인수하되, ‘터미널 투자’가 다수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SCMP는 중국이 여전히 서방 기업이 파나마 항구 경영권을 갖는 것 자체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6) 뉴시스(2025.04.2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209998?sid=104>(2025.05.21. 검색)

2 중국, 남미 항만·인프라 투자로 곡물 수입망 다변화 추진²⁷⁾

- 중국은 식량 안보 확보와 미국산 농산물 의존도 탈피를 위해 남미에 대한 항만 및 철도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중국 국영기업 코프코(Cofco)는 브라질 산투스항에 연간 1,400만 톤 처리 가능한 곡물 수출 터미널을 건설 중이며, 이는 코프코의 기존 수출 능력인 연간 450만 톤의 3배를 넘어서는 중국 외 지역 중 최대 규모임
 - 그 외에도 중국은 브라질 태평양 연안의 35억 달러 규모 심해항, 철도 건설 등의 사업도 병행하고 있으며, 이는 물 부족과 경작지 감소 문제를 겪는 중국이 장기적으로 곡물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전략임
- 브라질 산투스항은 중국 곡물 수출의 핵심 관문으로 부상했지만 물류 병목과 기반 시설 부족이 주요 과제로 지적되고 있음
 - 브라질은 중국 농산물 수입의 약 25%, 대두 수입의 70%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 중 30%가 산투스항을 통해 이동하고 있음
 - '23년 기준, 산투스항은 1억 8,000만 톤의 화물을 처리했으며, 벌크 항만 용량의 안전 한계치인 85%를 넘어선 90% 이상이 가동 중에 있음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7) 글로벌이코노믹(2025.05.14.), https://www.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505131826279226fbbec65dfb_1/article.html(2025.05.21. 검색)

4) 유럽



1 북유럽 지역 항만 혼잡 심화²⁸⁾²⁹⁾

- 북유럽 전역의 항만들이 노동조합 파업, 인프라 과부하, 병목 현상, 새로운 해운 동맹 도입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심각한 혼잡 상태에 직면함
- 앤티워프-브뤼헤, 브레머하펜, 로테르담, 펠릭스토우 등 주요 북유럽 항만에서 컨테이너 물동량이 크게 증가하며 대기시간과 야드 점유율이 모두 상승함
- 벨기에, 프랑스, 영국, 독일 등에서 항만 파업이 확산 및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M 해체, 제미니 협력 등으로 인한 총 선박 기항 횟수의 증가, 라인강 저수위로 인한 바지선 운항 제한과 철도·도로 측 물류 과부하로 인한 항만 반출 물량의 적체, '25년 아시아-유럽 노선 물동량 증가 등이 혼잡 심화의 복합적 원인으로 지목됨
- 4월 말 기준 앤티워프-브뤼헤항은 파업으로 인한 가동 중단으로 100척 이상의 선박이 대기하는 등 극심한 적체가 나타났으며, 선사들은 화주에 컨테이너 조기 인수와 수출 선적 조정 요청을, 일부 터미널은 야드 혼잡 완화를 위해 수출 컨테이너 인수 기한을 단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조성현 전문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28) Lloyd's List(2025.05.01.), <https://www.lloydslist.com/LL1153336/Calm-before-the-storm-European-port-congestion-could-be-about-to-get-a-whole-lot-worse> (2025.05.21. 검색)

29) Metro Shipping(2025.04.29.), <https://metro.global/news/northern-europes-ports-struggle-with-congestion/> (2025.05.21. 검색)

2 엔트워프-브뤼헤항, 유럽 최초 전기 예인선 공식 출항³⁰⁾

5월 19일, 엔트워프-브뤼헤항은 유럽 최초의 완전 전기 예인선 Volta 1을 공식 출항 시키며, '50년 기후 중립 항만 실현을 향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발표함

- Volta 1의 배터리 용량은 2,782MWh로, 1.5MW 고속 충전기로 2시간 만에 완전 충전 가능, 12시간 연속 운항이 가능하며, 최대 견인력은 70톤, 최고 속도는 12노트로 기존 디젤 예인선과 동일한 성능을 제공함
- 예인 서비스는 항만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85%를 차지하는 분야로, 엔트워프-브뤼헤항은 Volta 1을 포함해 추가로 도입된 에너지 효율형 예인선 5척과 함께 노후 선박을 전면 교체함
- 엔트워프-브뤼헤항은 세계 5위 규모의 벙커링 항만으로, 바이오·전통 연료 외에 저탄소 대체 연료를 제공해 항만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 중립 목표를 가속하고자 하며, 지난 1년 반 동안 세계 최초 수소·메탄올 예인선을 순차 도입한 후, 현장에서 시험하며 배출량·비용·자율운항시간·성능 등 여러 기준을 비교·검증하고 있음

조성현 전문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30) Port of Antwerp Bruges(2025.05.19.), <https://newsroom.portofantwerpbruges.com/port-of-antwerp-bruges-launches-the-volta-1-europes-first-electric-tugboat> (2025.05.21. 검색)

5) 오세아니아



①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철도 물류 확충 및 항만 경쟁력 강화 추진³¹⁾

뉴사우스웨일스주 항만청(NSW Ports)은 보타니항과 캠블라항을 중심으로 물류 효율성 향상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 투자 및 지속가능성 강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보타니항에서는 컨테이너 처리능력 강화를 위해 DP World와 공동으로 철도 연계 인프라 확충 사업이 진행 중임
- 해당 사업은 터미널 내에 600m 규모의 철도선로 4개를 신설하고, 이를 위한 레일 장비와 야드 운영 시설을 구축하는 것으로, 연간 100만 TEU 이상의 철도 처리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NSW Ports는 본 사업에 1억 4,800만 호주달러를, DP World는 추가 철도선로 및 물류단지 개선에 2억 5,000만 호주달러를 투자함

캠블라항에서는 항만 기능의 전환과 다각화를 위해 해상풍력, LNG 수입, 곡물 및 철강 수출 등 다양한 산업군에 대응하는 항만 재정비가 진행 중임

- 최근 완료된 LNG 수입터미널은 하루 최대 500TJ의 가스를 공급할 수 있으며, 이는 뉴사우스웨일스주 최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임
- 해당 사업은 기존 석탄터미널 부지를 재활용하여 구축되었으며, 약 2,700만 호주달러가 지역경제에 기여되고 2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캠블라항 외항(Outer Harbour) 개발 계획이 변경되어, 단기적으로는 해상풍력 기자재 취급이 가능하도록, 장기적으로는 컨테이너 전용부두로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조정 중임

NSW Ports는 항만운영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음

- Enfield 인터모달 시설에서는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전력 사용량이 45% 절감되었으며, 철도를 통한 물류 비중도 '22년 대비 11% 증가함
- Scope 2 온실가스 배출은 100% 상쇄 완료되었으며, Scope 1 및 2 배출은 올해 중반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계획임
- 또한 Scope 3 배출 감축을 위한 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그린 전력 확보와 대체연료 기술 도입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음

31) Daily Cargo News(2025.05.), [https://www.thedcn.com.au/dcn-magazine/feature/nsw-keeping-the-wheels-turning/\(2025.05.21. 검색\)](https://www.thedcn.com.au/dcn-magazine/feature/nsw-keeping-the-wheels-turning/(2025.05.21. 검색))

- 
항만청은 크루즈 산업이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계기로 삼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
 - '23~'24년 크루즈 시즌에는 주 전체에서 총 366척의 크루즈가 입항하여 약 44억 호주달러의 경제 효과를 창출함
 - 에덴 지역은 접안 허용 선박 길이가 370m까지 확대되고 연간 60척 제한도 해제되어, 대형 크루즈 선박 유치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됨
 - 대표적으로 지난 2월 22일, Ovation of the Seas호가 4,862명의 승객을 태우고 스너그 코브에 입항하며 지역사회 관심을 모은 바 있음

- 
NSW Ports는 향후에도 항만별 기능 특화와 인프라 현대화를 통해 뉴사우스웨일스주 물류 체계의 지속가능성과 회복 탄력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임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6) 아프리카



1 사우디 RSGTI, 남아공 더반항 신선화물 전용터미널 개발 검토³²⁾

■ 사우디아라비아의 항만운영사 레드씨게이트터미널인터내셔널(RSGTI)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항(Durban Port) 내 신선화물 전용터미널 개발 및 운영 사업 참여를 검토 중임

- 이번 사업은 남아공 국영 물류회사 Transnet이 요청한 민간사업자 제안요청(RFP)에 따라 추진되며, 더반항 Maydon Wharf에 위치한 부지에 대해 25년 운영권을 부여하는 조건의 민간투자형 항만개발사업임
- 개발 대상 부지는 총 145헥타르 규모, 15개 선석, 연간 700만 톤의 화물 처리 능력을 갖추는 대형 프로젝트임

■ RSGTI는 현지 파트너와의 공동 참여 가능성도 함께 검토 중이며, RSGTI 관계자는 “남아공 항만 및 연관 물류산업에 대한 투자 의지가 강하다”고 밝힘

- 남아공은 세계 2위 규모의 감귤류(자몽, 레몬, 오렌지 등) 수출국으로, 한국, 중동 등지로의 수출을 확대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남아공 항만은 낙후된 장비, 부정부패, 도난 등으로 물류 처리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임
- Transnet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참여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 RSGTI의 이번 검토는 자사의 글로벌 항만 운영 실적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음

- '25년 5월 5일 자사 SNS를 통해, '25년 3월 20일 CMA CGM 소속 SSF Dream호 작업 중 자동화 크레인을 활용해 시간당 53.56건의 작업 생산성(GMPH)을 기록하며 새로운 운영성과를 달성했다고 발표함
- 해당 선박은 Gulf-Jeddah 간 Feeder 1 서비스에 투입되는 3,534TEU급 컨테이너선임

■ RSGTI는 사우디 국부펀드(PIF)의 9,250억 달러 규모 자금력을 바탕으로 아프리카와 글로벌 항만시장으로의 투자 다변화를 본격 추진 중임

- 이번 더반항 프로젝트 참여는 중동과 아프리카 간 식량물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전략적 시도로 평가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32) Fresh Plaza(2025.05.07.), [https://www.freshplaza.com/north-america/article/9729563/saudi-rsgti-plans-fresh-produce-terminal-at-durban-port/\(2025.05.21. 검색\)](https://www.freshplaza.com/north-america/article/9729563/saudi-rsgti-plans-fresh-produce-terminal-at-durban-port/(2025.05.21. 검색))

03 품목 및 산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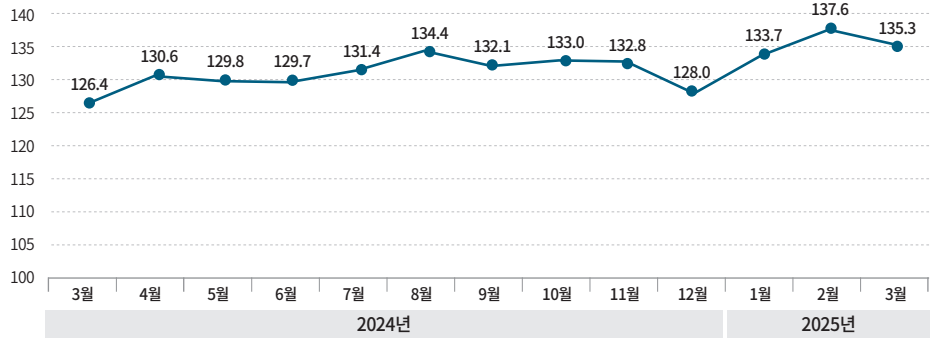
1) 컨테이너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처리지수

1 '25년 3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 전월 대비 1.7% 감소³³⁾

-  '25년 3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는 전월 대비 1.7% 감소, 전년 동월 대비 7.0% 증가한 135.3p를 기록함
- 중국 항만에서의 컨테이너 물동량 지수는 154.8p로 전월 대비 1.9%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2.2% 증가함
 - 유로존 북부와 독일 지역의 3월 항만물동량 지수(North Range Index)는 112.1p로 전월 대비 0.6%. 전년 대비 2.0% 감소함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Total	126.4	130.6	129.8	129.7	131.4	134.4	132.1	133.0	132.8	128.0	133.7	137.6	135.3	-1.7	7.0
China Index	138.0	153.8	144.3	144.1	145.6	149.3	145.5	145.8	143.2	140.7	142.4	157.8	154.8	-1.9	12.2
North Range Index	114.4	109.9	111.1	109.7	111.5	114.0	112.2	114.7	114.5	107.5	114.1	112.8	112.1	-0.6	-2.0

주: 2015=100, 계절조정
자료: IISL, [https://www.isl.org/en/services/rwiisl-container-throughput-input-index-0325\(2025.05.20. 검색\)](https://www.isl.org/en/services/rwiisl-container-throughput-input-index-0325(2025.05.20.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33) ISL(2024.04.25.), [https://www.isl.org/en/services/rwiisl-container-throughput-input-index-0325\(2025.05.20. 검색\)](https://www.isl.org/en/services/rwiisl-container-throughput-input-index-0325(2025.05.20. 검색))

2 마·중 무역 완화로 컨테이너선 포화 직면³⁴⁾

-  미국과 중국이 상호 보복관세에 대해 90일간 유예 연장에 합의한 이후, 중국발 미국행 컨테이너선 예약이 급증하고 있음

 - 주요 컨테이너 선사들에 의하면 신발, 소파, 자동차 부품 등 미국의 수입업자들이 관세가 다시 부과되기 전 물건을 들여오기 위해 서두르면서 컨테이너선 예약이 급증하고 있어 즉흥적인 예약을 수용할 공간이 거의 없다고 밝힘
 - 이로 인해 중국 항만과 공장에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는데 몇 주가 걸릴 수 있다고 밝힘
 - 컨테이너 추적 소프트웨어 업체인 비지온(Vizion)에 따르면 5월 15일까지 7일간의 평균 예약 건수가 21,530건(TEU 기준)으로 이는 5월 5일까지 일주일 평균 5,709건에서 무려 277% 급증함
-  다만,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팬데믹 당시 수준의 물량 폭증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수요가 다소 크게 늘겠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힘

 - 이미 많은 선박들이 중국~미국 항로를 감편한 상태여서 선박 공간이 더욱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미 대부분의 미국 기업들이 관세 부과 전 확보해 둔 재고가 충분하여 팬데믹 당시와 같은 수요 폭증은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90일 내 협정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평균 관세율을 54%로 복귀할 것으로 밝힘에 따라 여전히 시장의 불확실성은 높은 상태임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34) Reuters(2025.05.16.), <https://www.reuters.com/business/autos-transportation/container-ship-owners-swamped-us-china-trade-detente-revives-demand-2025-05-16/> (2025.05.20. 검색)

2) 양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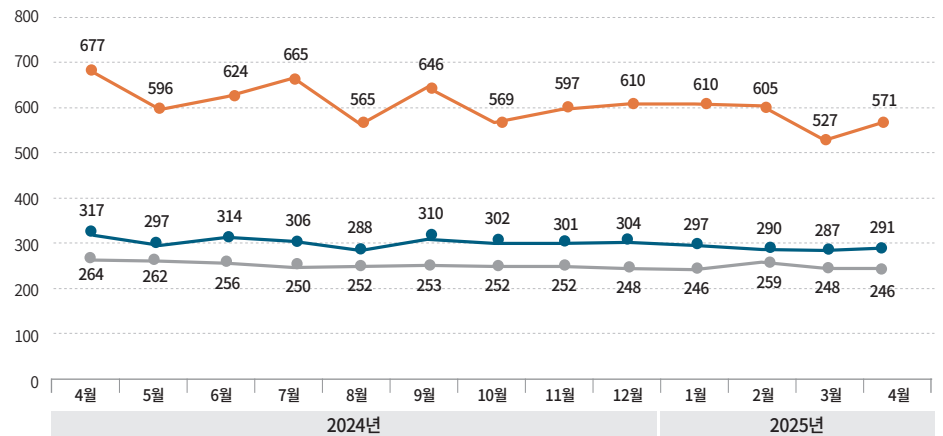


1

'25년 4월 말, 대두, 옥수수의 수입단가는 전년 동월 대비 감소 추세를 보임³⁵⁾

- '25년 4월 밀의 수입단가는 전년 동기 대비 8.4% 감소한 톤당 291달러를 기록, 같은 기간 대두는 15.7% 감소한 571달러, 옥수수 역시 7.0% 감소한 246달러 기록함
- 전월 대비 실적의 경우 밀(+1.4%)과 대두(+8.4%)는 다소 증가하는 추세로 3월까지 나타난 하락세가 다소 반전되는 양상으로 보였으며, 옥수수(-0.9%)는 보합세를 나타냄
- 미국 내에서 순조로운 곡물 파종에 따라 시카고상품거래소 기준, 옥수수, 대두 선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옥수수의 경우 연중 최저치를 나타냄³⁶⁾
- 여기에 더해 트럼프 정부의 상호 관세 불확실성 및 중국과의 무역 갈등 상황 등 대내외 여건으로 곡물 가격 하방 압력이 지속되는 양상임

(단위: 달러/톤)



(단위: 달러/톤)

밀과 옥수수 수입단가 추이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밀	317	297	314	306	288	310	302	301	304	297	290	287	291	1.4	-8.4
대두	677	596	624	665	565	646	569	597	610	610	605	527	571	8.4	-15.7
옥수수	264	262	256	250	252	253	252	252	248	246	259	248	246	-0.9	-7.0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3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곡물 가격동향(2025.04.30.), [https://www.krei.re.kr/grain/page/259\(2025.05.23. 검색\)](https://www.krei.re.kr/grain/page/259(2025.05.23. 검색))

36) 축산경제신문(2025.05.09.), [https://www.chukky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845\(2025.05.23. 검색\)](https://www.chukky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845(2025.05.23. 검색))

3) 시멘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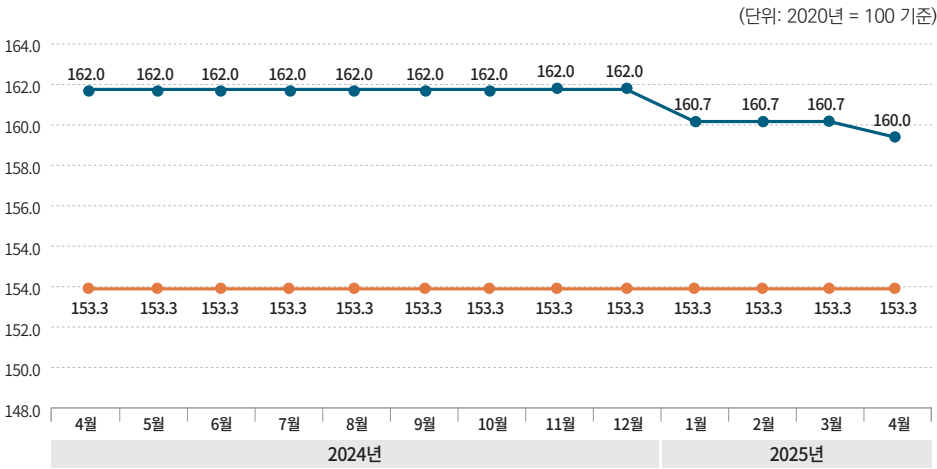
시멘트 생산자물가지수

● 포틀랜드
● 고로슬래그

1 '25년 4월 포틀랜드 시멘트 생산자물가지수 소폭 감소

● '25년 4월 포틀랜드 시멘트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4%p 감소한 160.0p를 기록함

- 고로 시멘트는 '23년 12월 이후 변동 없이 보합세를 보임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포틀랜드	162.0	162.0	162.0	162.0	162.0	162.0	162.0	162.0	162.0	160.7	160.7	160.7	160.0	-0.4	-1.3	
고로슬래그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0.0	0.0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I2(2025.05.26.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 국내 1분기 시멘트 출하량 21.8% 감소, '98년 이후 최저치 기록³⁷⁾

-  '25년 1분기 국내 시멘트 출하량이 812만 톤으로 집계되며, 전년 동기 대비 2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98년 외환위기(IMF 사태) 이후 최저 수준임

 - 1분기 시멘트 출하량이 1,000만 톤을 밑돈 것은 '98년과 '08년 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하고는 이번이 처음임
 - 출하량 감소율이 20%대를 기록한 것도 '98년(23.1%) 이후 27년 만에 처음임
-  이와 같은 수요 감소는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영향으로, 착공과 인허가 감소 등 건설 활동 전반의 위축이 시멘트 수요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됨

 - 시멘트 수요는 건축 착공과 직접 연계되며, 실제로 '96~'97년 SOC 대형 프로젝트 추진 시기에는 연간 출하량이 6천만 톤을 초과한 바 있음
 - 하지만 최근에는 분양, 인허가, 착공 등 건설 주요 지표 전반이 하락세를 보이며 시멘트 수요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음
-  이로 인해 시멘트 제조 주요 7개 기업의 '25년 1분기 실적도 전반적으로 악화됨

 - 삼표시멘트: 영업이익 16억 원, 전년 동기 대비 89.5% 감소
 - 한일시멘트: 영업이익 125억 원, 75.5% 감소
 - 아세아시멘트: 영업이익 34억 원, 70.4% 감소
 - 쌍용C&E: 265억 원 영업적자
 - 성신양회: 61억 원 적자 전환
-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5년 1분기 주택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11.5%, 주택 착공은 25.0% 감소하였으며, 이는 시멘트 수요 감소와 밀접하게 연결됨

 - 이 같은 흐름 속에 업계는 올해 연간 출하량이 4천만 톤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시멘트 출하량은 '91년 4,400만 톤을 기록한 이후 단 한 번도 4천만 톤을 밑돈 적이 없었음
 - 하지만 올해는 30여 년 만에 4천만 톤 하회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음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37) 연합뉴스(2025.05.16.), <https://www.yna.co.kr/view/AKR20250516065800003>(2025.05.21. 검색)

4) 모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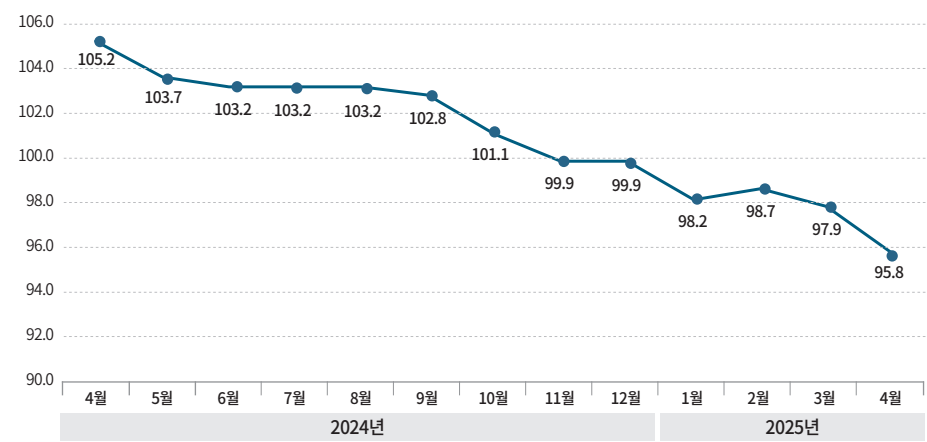


모래 생산자물가지수

1 '25년 4월 생산자물가지수 95.8p 기록, 감소세 지속

'25년 4월 모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2.1% 감소, 전년 동월 대비 9.0% 감소한 95.8p를 기록함

(단위: 2020년 = 100 기준)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모래	105.2	103.7	103.2	103.2	103.2	102.8	101.1	99.9	99.9	98.2	98.7	97.9	95.8	-2.1	-9.0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I2\(2025.05.26. 검색\)](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I2(2025.05.26.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 강화군 어민 주도 ‘바다모래 채취사업’ 본격 추진 전망³⁸⁾

-  인천 강화군 어민들이 주체가 되는 바다모래 채취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 ‘강화어민모래조합연합회’는 ’24년 1월 기획재정부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이후 사업 추진을 준비해 왔으며, ’25년 5월 9일 강화군 군정위원회에서 본 사업의 추진 방침이 결정되었음
 - 기존 민간기업 주도 방식과 달리, 지역 어촌계 어민들이 주체가 되는 협동조합 형태의 자율사업으로 진행됨
-  조합 측은 본 사업에서 전체 지분의 60%를 연합회가 보유해 실질적인 운영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역 어촌계 15곳 및 어민 98% 이상이 참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짐

 - 사업 대상 해역은 서도면 주문도, 석모도, 장봉도 인근으로, 총매장량 약 2억 4천 만³ 중 가채량은 약 1억 6천 만³, 모래 품질은 최상급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공동시행사로는 민간기업 (주)서강이 참여함
-  이 사업은 단순한 수익사업을 넘어, 연안 수심 확보와 해양환경 정화, 골재 수급 안정, 지역경제 기여 등을 동시에 도모하는 복합적 목적을 지님

 - 강화 연안은 한강 남단에 위치해 있어 모래 퇴적에 따른 홍수 재해 우려가 지속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사업은 방재 효과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음
-  (주)서강 측은 해저지형 및 부존량 조사를 통해 충분한 매장량을 확인했으며, 사업이 본격화되면 강화군에 연간 약 400억 원의 세외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아울러, 국내 건설업계의 골재 부족 해소, 지역 어민 수익 창출 등 다층적인 경제 효과도 기대됨
-  이번 바다모래 채취사업은 전국 최초로 지역 어민들이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모델로,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활용과 지역사회 주도의 경제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음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38) 경인방송(2025.05.13.), [https://news.ifm.kr/news/articleView.html?idxno=442322\(2025.05.21. 검색\)](https://news.ifm.kr/news/articleView.html?idxno=442322(2025.05.21. 검색))

5) 석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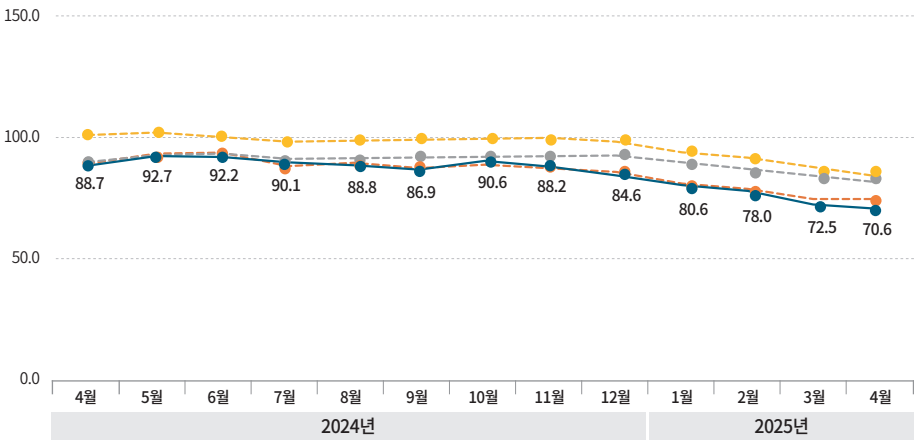
유연탄 가격 추이

- 뉴캐슬
- 리차드베이
- 칼리만탄
- 중국남부

1 '25년 4월 유연탄 가격 전월 대비 감소세 지속

'25년 4월 유연탄 가격(뉴캐슬, 5,000kcal/kg, NAR, FOB 기준)은 톤당 70.6달러로 전월 대비 2.6%, 전년 동월 대비 20.4% 감소함

- 지역별로 리차드베이산은 전월과 유사한 수준의 가격을 기록하였으며, 칼리만탄산과 중국남부산은 같은 기간 각각 3.5%, 4.0% 감소함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뉴캐슬	88.7	92.7	92.2	90.1	88.8	86.9	90.6	88.2	84.6	80.6	78.0	72.5	70.6	-2.6	-20.4
리차드베이	89.6	93.6	93.9	88.3	89.8	87.6	89.1	88.3	85.9	81.1	79.0	74.8	74.8	0.0	-16.5
칼리만탄	90.2	93.1	93.7	91.4	91.7	92.0	93.5	93.6	92.9	89.6	86.3	84.5	81.6	-3.5	-9.6
중국남부	101.4	102.2	99.7	98.5	99.2	99.9	100.8	100.2	98.5	94.0	91.9	87.6	84.0	-4.0	-17.1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RsrcPrice/IronOre\(2025.05.20](https://www.komis.or.kr/Komis/RsrcPrice/IronOre(2025.05.20)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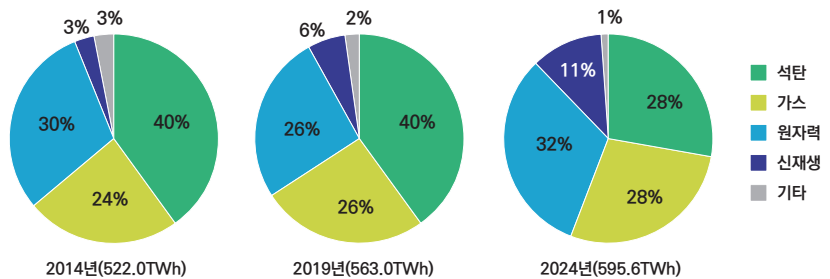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2 '24년 석탄 발전 비중 18년 만에 1위 자리 내줘³⁹⁾

- '24년 국내 총 발전량(595.6TWh)은 전년 대비 1.3%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지난 17년간 최대 발전원이었던 석탄 발전이 원자력과 가스에 이어 3위를 기록함

 - 원자력(188.8TWh, 31.7%) 1위를 기록하였으며, 그 뒤를 가스(167.2TWh, 28.1%), 석탄(167.2TWh, 28.1%), 신재생(63.2TWh, 10.6%) 순을 기록함
 - 에너지원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전년 대비 높은 증가세(11.7%)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어서 가스(+6.0%), 원자력(+4.6%)이 증가한 반면, 석탄은 같은 기간 9.6% 감소함
- 이로 인해 석탄 소비 역시 68.0백만 톤으로 전년 대비 6.2% 감소한 반면 석유 (121.3백만 톤, +2.8%), 천연가스(61.2백만 톤, +5.9%), 원자력(40.2백만 톤, +4.6%) 소비는 모두 증가함
- 한편, 앞으로도 탄소 중립과 함께 원전·재생·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추진할 계획임에 따라 석탄의 발전 비중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발전부문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 변화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3f49a5a8c/170507/view#\(2025.05.20.검색\)](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3f49a5a8c/170507/view#(2025.05.20.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39)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5.05.12.),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3f49a5a8c/170507/view#\(2025.05.20.검색\)](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3f49a5a8c/170507/view#(2025.05.20.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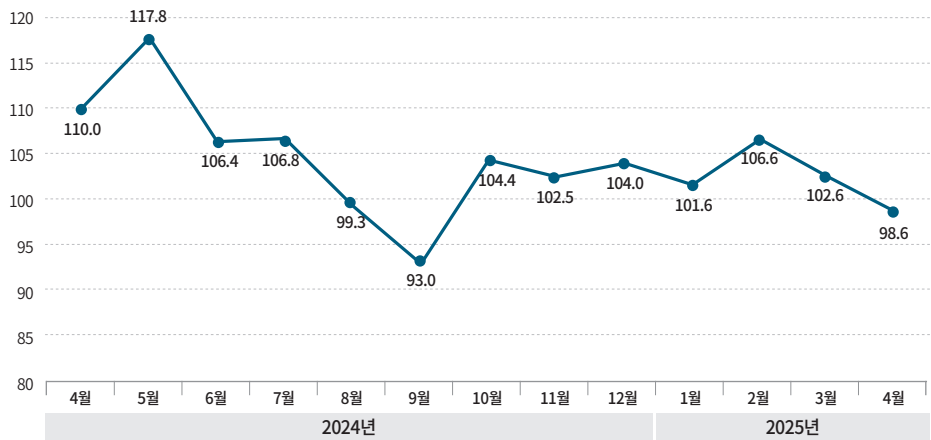
6) 철광석



철광석 가격 추이

1 '25년 4월 철광석 가격 전월 대비 3.8%, 전년 동월 대비 10.4% 감소한 98.6달러 기록

- '25년 4월 철광석 가격(Fe 62%, 중국 칭다오항 도착기준)은 톤당 98.6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1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함
- 내수 경기 둔화 영향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당분간 하락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철광석	110.0	117.8	106.4	106.8	99.3	93.0	104.4	102.5	104.0	101.6	106.6	102.6	98.6	-3.8	-10.4

주: 62% 분광 중국 칭다오항 도착 기준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RsrcPrice/IronOre\(2025.05.21\)](https://www.komis.or.kr/Komis/RsrcPrice/IronOre(2025.05.21)) 검색

조성현 전문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2 올해 철광석 가격 약세 전망⁴⁰⁾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무디스 등 글로벌 기관들이 중국 조강 감소와 공급 과잉 등의 영향으로 올해 철광석 가격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함

- 무디스는 철광석 가격이 향후 최대 18개월 동안 톤당 80~100달러 수준을 유지하며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함
- 무디스는 중국 내 조강 생산 감축과 친환경 기술로의 전환은 저품질 철광석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있으며, 대형광산 기업들은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시장 내 공급 과잉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함
-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 BMI는 올해 철광석 평균 가격이 톤당 100달러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는데, 중국 내 조강 생산 제한 정책 및 건설업 경기 침체,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의 하방 압력에도 중국의 추가 경기부양 조치와 미·중 무역 협상 진전 가능성 등 일부 긍정적 요인이 가격 하락 위험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함
- BMI는 장기적으로 철광석 가격이 '34년까지 점진적으로 하락해 톤당 78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함

조성현 전문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40) 철강금속신문(2025.05.21.), <https://pdf.snmnews.com/PDF/REAL/2025/05/21/PS010521010100301B0001.pdf>(2025.05.21.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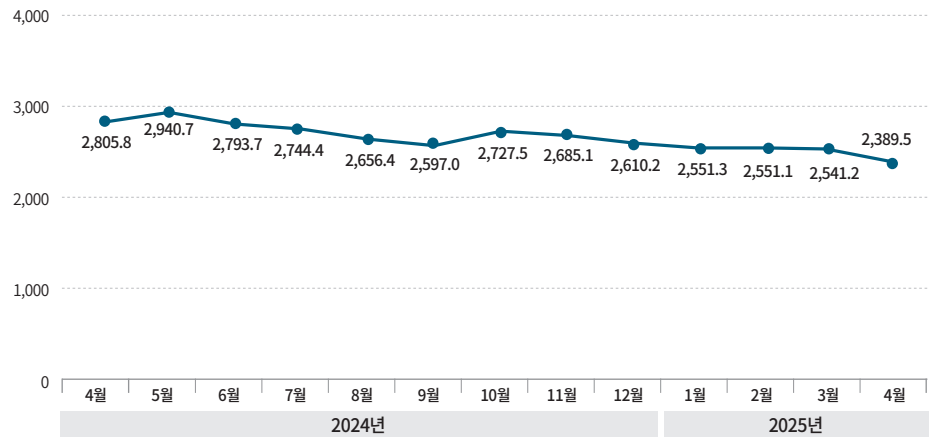
7) 기타광석



광물종합지수 추이

1 4월 광물종합지수는 2,389.5p로 전월 대비 감소

’25년 4월 광물종합지수는 전월 대비 소폭 감소한 2,389.5p를 기록하였으며, 전년 동월(2,805.8p) 대비해서는 14.8% 감소함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광물종합지수	2,805.8	2,940.7	2,793.7	2,744.4	2,656.4	2,597.0	2,727.5	2,685.1	2,610.2	2,551.3	2,551.1	2,541.2	2,389.5	-6.0	-14.8

주: 광물종합지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전반적인 자원시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국내 수입금액 20위권 이내 광종 중 산업전략적 중요광물 (동, 니켈, 아연, 리튬 등) 15개를 선정하여 자체 개발한 종합지수로서, 기준시점은 2016년 1월을 1,000으로 함. 매일 발표하며 월별 실적은 일별 데이터의 평균값을 산출함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MnrIIndc/IndxMin\(2025.05.26.검색\)](https://www.komis.or.kr/Komis/MnrIIndc/IndxMin(2025.05.26.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 중국, 전략 광물 전 주기 통제 강화 추진⁴¹⁾

-  중국 정부는 전략 광물에 대한 통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조치로, 광물의 채굴, 제련·가공, 운송, 제조, 유통, 수출에 이르는 전 주기 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함
- '25년 5월 12일, 중국 상무부는 공업정보화부,公安部, 国家安全部 등 중앙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전략 광물 주산지인 내몽골, 浙江省, 河南省 등의 지방정부 관계자들을 소집해 '통제 강화 회의'를 개최함
- 해당 회의에서는 중앙-지방 간 협력을 바탕으로 각 산업 단계별 통제를 정밀화하고, 기업에 대한 교육과 감독, 광물 이동 흐름 추적 시스템 강화, 지방정부 책임 분담 등이 논의됨
- 회의 참석자는 "전략 광물 통제는 국가 안보와 발전 이익에 직결되며,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정보 공유 체계 및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함
- 이번 조치는 5월 9일 개최된 밀수출 단속 관련 회의에 이어 연속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중국이 전략 광물에 대한 관리 강화 의지를 본격화하고 있음을 시사함
- 특히 세계 최대 리튬 생산 기업인 텐치 리튬(Tianqi Lithium) 등 전략 광물 공급망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기업과 지역은 향후 더 엄격한 규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41) 더구루(2025.05.14.),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86921>(2025.05.26. 검색)

8) 목재



1 산림청, 국산 활엽수 고부가가치 활용 방안 논의, 평창군에서 참나무 목재 수확 시범사업 추진⁴²⁾

- ▶ **산림청이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에서 국산 참나무 등 활엽수의 고부가가치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함**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산림과학회, 한국식품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하여 활엽수 활용 방안을 모색함
 - 우리나라 산림 중 활엽수림은 약 3분의 1을 차지하며, 주요 수종인 참나무류의 분포 면적은 약 104만 ha로 풍부한 잠재력을 보유함
- ▶ **평창군 국유림 약 17ha에서 참나무 목재 수확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시범사업으로 생산된 목재는 오크통, 가구재 등 고부가가치 용도로 우선 활용하고, 자투리 나무와 코르크(참나무 수피) 등 부산물도 최대한 수집해 활용할 예정임
 - 기후변화와 소나무재선충 등 산림재해에 대응해 경제적으로 유용한 활엽수 자원의 이용 활성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 **토론회에서는 시범사업 관련 세부 방안들이 논의됨**
 - 국산 활엽수의 고부가가치 활용 필요성 공유,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적정성, 친환경 목재 수확 방법 및 목재 수확 이후의 산림조성 방안 등이 주요 의제였음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목재생산·공급 체계 구축이 중요하며, 국내 목재시장 신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활엽수의 고부가가치 활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42) 산림청 보도자료(2025.05.20.), [https://www.forest.go.kr/kfswwe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3207839&bbsId=BBSMSTR_1036&pageUnit=10&pageIndex=1&searchTitle=title&searchCont=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Wrd=%eb%aa%a9%ec%9e%ac&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20250416&ntcEndDt=20250522&mn=NKFS_04_02_01&orgId=\(2025.05.22. 검색\)](https://www.forest.go.kr/kfswwe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3207839&bbsId=BBSMSTR_1036&pageUnit=10&pageIndex=1&searchTitle=title&searchCont=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Wrd=%eb%aa%a9%ec%9e%ac&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20250416&ntcEndDt=20250522&mn=NKFS_04_02_01&orgId=(2025.05.22.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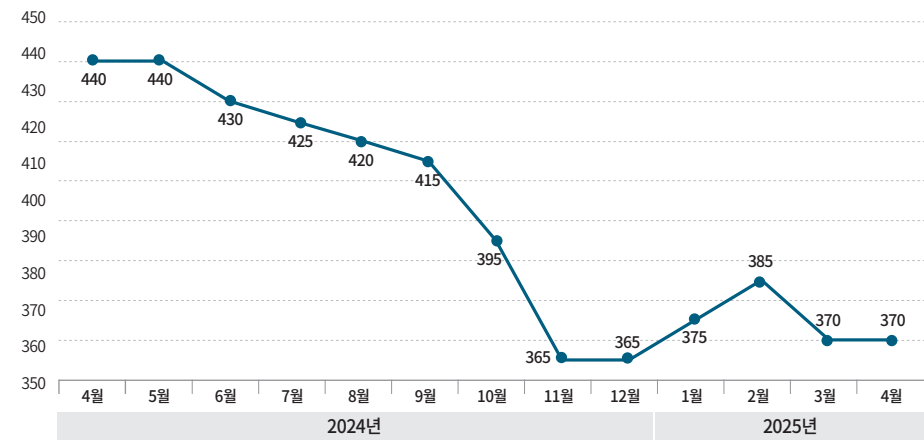
9) 고철



고철(생철)
연간 가격 추이

1 국내 고철 가격 상승세 지속

- 국내 4월 생철 가격은 전월 대비 보합세, 전년 동월 대비 15.9% 하락한 톤당 37만 원을 기록함
- '24년 1월에 톤당 47만 원을 기록한 후 12개월 연속 감소 또는 보합세를 기록한 생철 가격은, '25년 1월과 2월에 소폭 상승했으나 3월부터 다시 감소 또는 보합세가 이어짐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생철	440	440	430	425	420	415	395	365	365	375	385	370	370	0.0	-15.9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2025.05.23.),<https://www.motie.go.kr/kor/contents/103>(2025.05.26.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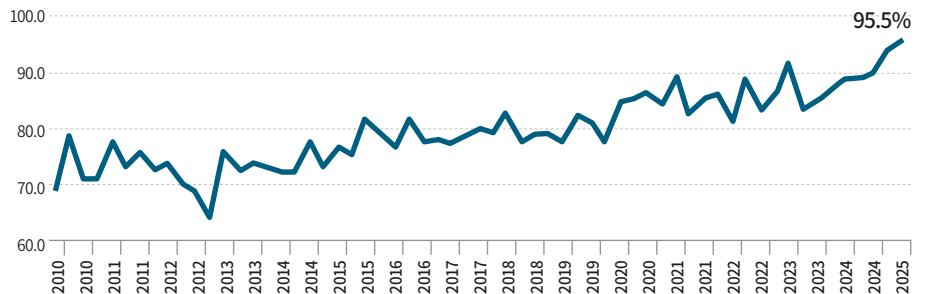
조성현 전문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2 국내 1분기 고철 자급률 역대 최대치 기록⁴³⁾

올해 1~3월 국내 고철 자급률은 95.5%로 전년 동기(88.7%) 대비 6.8%p, 전 분기(93.8%) 대비 1.7%p 상승함

- 고철 자급률 산정은 수입을 제외한 국내 공급량(국내 구입+자가 발생)에서 전체 소비량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고철 국내 공급 대비 소비 감소 폭이 더욱 커지며 자급률이 가파르게 상승함
- 올해 1분기 국내 제강사 고철 소비는 463만 1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0% 감소하여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최근 고점인 '23년 2분기(731만 7천 톤)와 비교하면 약 3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고철 소비 감소는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봉형강 시황 악화 영향이 크며, 건설경기 선행지표 개선과 본격적인 금리 인하 페이스로 일각에서는 올해 상저하고 관측도 나오고 있으나, 당장의 동행지표 건설투자 위축으로 뚜렷한 실적 반등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철스크랩 분기별 자급률



자료: 철강금속신문(2025.05.21.), <https://pdf.snmnews.com/PDF/REAL/2025/05/21/PS010521010100301B0001.pdf>(2025.05.21. 검색)

조성현 전문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43) 철강금속신문(2025.05.21.), <https://pdf.snmnews.com/PDF/REAL/2025/05/21/PS010521010100301B0001.pdf>(2025.05.21. 검색)

10) 철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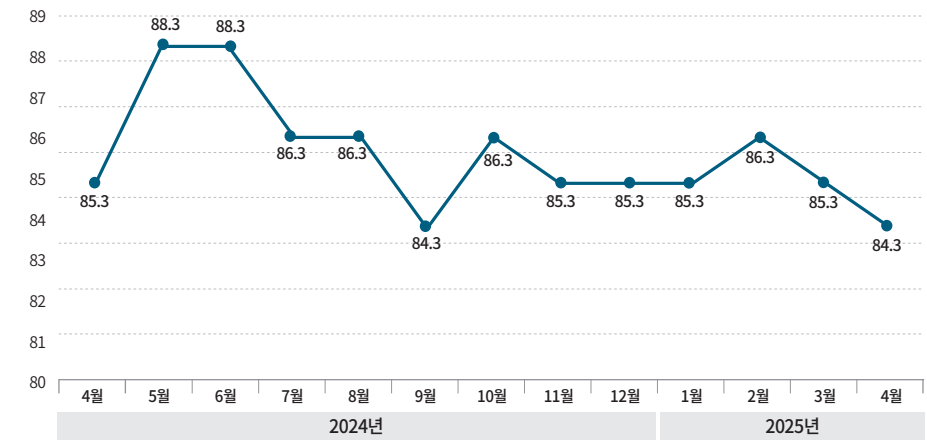


열연코일 연간 가격 추이

1 국내 열연코일 가격 소폭 상승

- 4월 열연코일(3.0×4×8mm) 가격은 전월 대비 1.2% 하락한 84만 3천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2% 하락한 수준임
- '23년 5월까지 톤당 108만 원대를 기록했던 열연코일 가격은 '23년 6월부터 급격히 하락하여 '23년 7월부터 꾸준히 톤당 80만 원~90만 원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음

(단위: 만 원/톤)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열연코일	85.3	88.3	88.3	86.3	86.3	84.3	86.3	85.3	85.3	85.3	86.3	85.3	84.3	-1.2	-1.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2025.05.23.),<https://www.motie.go.kr/kor/contents/103>(2025.05.26. 검색)

조성현 전문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2 EU, 철강 탄소 배출량 표시 추진⁴⁴⁾

 EU가 철강 탄소 배출량 표시를 포함한 여러 역내 탈탄소 정책안에 대해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함

- EC는 지난 5월 2일부터 7월 25일까지 12주간 청정 산업 협약(Clean Industrial Deal) 관련 여러 정책안에 대한 공공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의견 수렴의 주요 대상 가운데 하나는 철강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표시하는 라벨을 부착하는 제도임
-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부착하는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고, EU 탄소배출권거래제도(ETS) 자료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방법론을 활용할 것으로 알려짐
- 공공 및 민간 조달 시 저탄소, EU산 제품을 우대하거나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하며, 저탄소 영향 평가에서는 탄소 포집 및 활용, 지속 가능한 바이오매스, 재활용 폐기물을 포함한 깨끗한 탄소 원료의 활용에 대한 인센티브도 고려할 예정임
- 이번에 검토되는 정책안들은 EC가 지난 2월 발표한 청정 산업 협약의 구체화된 실행방안으로, 이 협약은 유럽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탈탄소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산업 탈탄소화 가속화법’ 제정과 시행을 핵심 요소로 함
- 산업 탈탄소화 가속화법은 탈탄소화 투자를 지원함으로써 EU 내 에너지 집약적 산업 부문에서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산업 생산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며, 구체적으로 탈탄소화 관련 인허가 절차 신속화, 우선순위 탈탄소 프로젝트 및 산업 클러스터 식별 및 촉진, 유럽산 저탄소 제품 선도 시장 창출 및 보호를 주요 목표로 함

조성현 전문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44) 철강금속신문(2025.05.12.), <https://pdf.snmnews.com/PDF/REAL/2025/05/12/PS010512010100301B0001.pdf>(2025.05.21. 검색)

11) 자동차



1 '25년 3월 자동차산업 동향, 내수 증가, 수출 감소, 생산 증가⁴⁵⁾

- 3월 내수는 전월 대비 12.5% 증가, 전년 동월 대비 2.4% 증가한 149,517대를 기록함
 - 개별소비세 인하 및 노후차 교체 지원(3.14~ 시행) 등 정부 소비진작책 시행으로 현대, 기아, 르노 실적이 개선되어 내수 증가를 견인함
 - 친환경차는 전기차가 테슬라(-57%)와 1톤 전기트럭 부진으로 8.9% 감소하였으나, 하이브리드 수요 집중(+22.8%)으로 전체 친환경차 내수는 전년 동월 대비 13.4% 증가한 69,751대를 기록함
- 3월 수출은 전월 대비 3.4% 증가, 전년 동월 대비 2.4% 감소한 240,898대를 기록함
 - 전기차 수출 감소와 한국지엠 북미 수출전략 모델 수요 감소, 르노코리아 선박 일정 조정 등에 의한 선적물량 감소가 주요 원인임
 - 친환경차 수출은 전기차 감소(-25.0%)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25.3%)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5.8% 증가한 68,764대를 기록하여 전체 자동차 수출의 28.5%를 차지함
- 3월 생산은 전월 대비 5.3%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4% 증가한 370,629대를 기록함
 - 수출 부진으로 인한 한국지엠과 KG모빌리티의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아와 르노의 호실적에 힘입은 생산 증가가 전체 실적을 견인함
 - 현대는 1.0% 감소한 반면, 기아는 5.5%, 르노코리아는 57.9% 증가함

단위 : 대, 백만 \$, %

'25년 3월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

구분	2024년			2025년			증감률		
	연간	3월	1~3월	1월	3월	1~3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1~2월
내수	1,626,245	146,019	378,228	132,854	149,517	388,299	12.5	2.4	2.7
(국산차)	1,344,432	120,769	323,630	111,089	122,800	323,335	10.5	1.7	-0.1
(수입차)	281,813	25,250	54,598	21,765	26,717	64,964	22.8	5.8	19
수출	2,782,612	246,815	688,607	232,977	240,898	673,729	3.4	-2.4	-2.2
(완성차 수출액)	70,786	6,169	17,531	6,067	6,234	17,294	2.8	1.1	-1.4
(부품 수출액)	22,549	1,911	5,765	1,871	1,843	5,269	-1.5	-3.6	-8.6
생산	4,128,242	365,520	1,024,443	352,061	370,629	1,013,278	5.3	1.4	-1.1

자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2025.04.29.), 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344&menunum=0004&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5.05.22. 검색)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45)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2025.04.29.), 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344&menunum=0004&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5.05.22. 검색)

2 미국 관세 여파로 대미 수출 감소세 지속, 자동차·부품 부문 직격탄⁴⁶⁾

-  한국의 대미 수출이 4월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5월에도 하락 흐름이 지속되고 있음
 - 대미 수출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와 부품 수출 감소세가 전체 대미 수출 부진을 견인하고 있음
 - 홍지상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은 “전월에 이어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함
-  국내 완성차 업체는 미국 내 재고를 활용해 관세 인상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임
 - 현대차·기아는 6월까지 비축 재고를 활용해 가격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대미 3위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유가 하락으로 4위 품목인 석유제품 수출 감소도 대미 수출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90일 관세유예 기간으로 인해 7월까지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상반기 중 대미 수출 위축 움직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영국과 중국 등 주요국과 미국의 협상이 타결되고 있지만, 관세 외에도 여러 이슈가 협상 선에 걸쳐있어 신중한 협상이 요구되는 시점임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46) 뉴시스(2025.05.21.),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521_0003184076(2025.05.22.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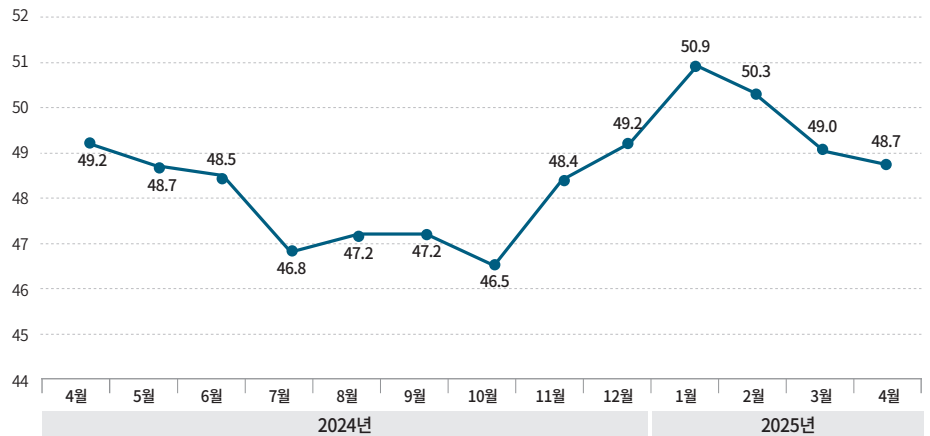
12) 잡화



1 미국 공급자관리협회(ISM),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8.7p로 전월 대비 하락⁴⁷⁾

- 3월(49.0p)에도, 전월 대비 하락한 PMI 지수는 시장의 예상치인 48.0p보다 다소 높았으나 이 같은 수치는 제조업 부문에서 두 달 연속 위축되고 있음을 시사함
 - 세부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생산 지수는 44.0p(전월 48.3p)로 크게 하락하였으며, 물가는 69.8p(전월 69.4p)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음
 - 한편, 신규 주문은 47.2p(전월 45.2p)로 하락 속도가 둔화하였으나 수출 주문은 관세의 여파로 혼란이 지속되는 한편 더욱 감소
- ISM 조사에 따르면, 미국 제조업체들은 비용 상승 및 수익성 압박에 직면해 있으며, 지속적인 무역 불확실성이 공급망의 리스크로 상존하고 있음
 - 이에, 운송지연, 복잡한 관세 체계, 비용 구조의 빈번한 변경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고객 수요의 변동성이 커지고 일부 고객은 주문을 지연하거나 관세 비용을 제조업체에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응답함

미국 PMI
(구매관리자지수) 추이



자료: Trading Economics(2025.05.01.), KMI 작성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47) Trading Economics(2025.05.01.), <https://tradingeconomics.com/united-states/business-confidence>(2025.05.23.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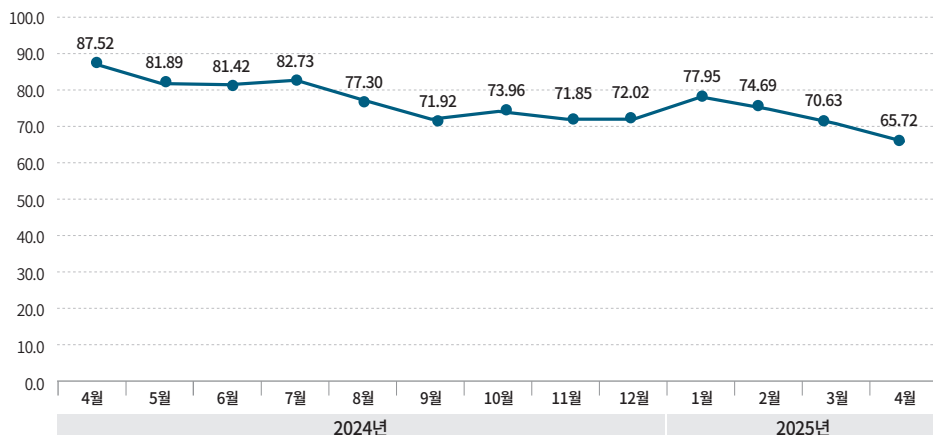
13) 유류



① '25년 4월 국제유가, 1월 이후 하락세 지속

- '25년 4월 세계 3대 유종의 배럴당 평균 유가는 전월 대비 7.0% 하락한 65.72달러를 기록함
- '24년에는 4월까지 상승 후, 전반적인 하향세를 보였으나 올해는 1월부터 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4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24.9% 하락함
- 미국이 강력한 관세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면서 미국 에너지정보청이 석유 수요 둔화를 전망했으며, 세계 경기 위축 우려가 높아지면서 유가가 지속 하락하고 있음
- 국제사회의 갈등과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며, 경기 위축 우려로 당분간 유가는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국제 원유 가격 추이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Dubai	89.17	84.04	82.56	83.83	77.60	73.52	74.94	72.61	73.23	80.41	77.92	72.49	67.74	-6.6	-24.0	
Brent	89.00	83.00	83.00	83.88	78.88	72.87	75.38	73.40	73.13	78.35	74.95	71.47	66.46	-7.0	-25.3	
WTI	84.39	78.62	78.70	80.48	75.43	69.37	71.56	69.54	69.70	75.10	71.21	67.94	62.96	-7.3	-25.4	
평균	87.52	81.89	81.42	82.73	77.30	71.92	73.96	71.85	72.02	77.95	74.69	70.63	65.72	-7.0	-24.9	

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국제석유가격, [https://www.petronet.co.kr/v4/sub.jsp\(2025.05.21. 검색\)](https://www.petronet.co.kr/v4/sub.jsp(2025.05.21.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 한국석유공사(KNOC), 쿠웨이트와 공동 원유 비축⁴⁸⁾

📌 국제공동비축 협력에 따라 쿠웨이트산 원유(KEC: Kuwait Export Crude Oil) 200만 배럴이 울산항에 도착하면서, 한국은 중동 3국과의 협력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있음

- 한국석유공사는 KEC 200만 배럴을 실은 유조선이 울산항에 도착했다고 밝혔으며, 울산비축기지에 하역함
- 국제공동비축은 석유공사의 유희 비축시설을 외국 국영석유사에 임대하여 평시에는 수익을, 위기 시에는 우선 구매권을 확보하는 제도임
- 석유공사의 저장시설은 정유사와 송유관으로 직접 연결되어 수급 효율이 높고, 한국은 지리적으로도 아시아 물류 거점으로서의 이점도 있음
- 한국은 이번 입고로 중동 3국으로부터 총 1,330만 배럴의 원유를 공동비축 형태로 유치하게 되었으며, 국내 일일 원유 수입량이 '23년 기준 280만 배럴임을 감안하면 중동산 원유만으로 약 4.8일의 수요를 확보하게 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8) 매일경제(2025.04.23.), [https://www.mk.co.kr/news/economy/11299255\(2025.05.21. 검색\)](https://www.mk.co.kr/news/economy/11299255(2025.05.21. 검색))

3 LNG시장 다변화 속,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제도적 중립기구 필요⁴⁹⁾

-  LNG 직수입 증가 및 시장 참여자 확대로 국내 천연가스 시장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질서 확립을 위해 중립적 거버넌스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자가소비용 직수입사는 '05년 2개에서 '23년 25개로 증가했고, 직수입 물량은 전년 대비 32% 증가해 전체 수입량의 26%를 차지하게 됨
 - 요금 결정의 투명성, 가스공급시설의 공정한 이용, 체리피킹 논란 등 제도적 문제들이 표면화되고 있음
 - 해외 주요국은 독립 규제기구를 운영하며 시장의 공정성과 정보공개를 확보하고 있으나, 국내는 한국가스공사의 지위와 영향력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음
 - 또한, 공정위, 감사원, 국회예산정책처 등도 가스요금 산정의 불투명성과 배관망 운영의 공정성 부족을 지적하고 있음
-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은 단기적으로 요금체계 개선, 중기적으로 독립규제위원회 설립, 장기적으로는 통합 에너지 규제기구 도입 등 단계적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단기적 방안에는 원료비 연동제 정비, 배관시설 공동이용 활성화, 요금 결정의 공정성 제고 등이 포함됨
 - 중기적으로는 시장 감시·요금 결정 기능을 가진 독립규제위원회를 설치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균형 조정 기능을 수행해야 함
 - 장기적으로는 전력과 가스를 통합 관리하는 에너지통합규제위원회를 설립해 정책 일관성과 시장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옴
 - LNG산업은 전력안정성과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핵심이며, 일본의 트레이딩 전략 등도 국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참고 사례로 언급되고 있음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9) 이투뉴스(2025.05.12.),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9332>(2025.05.21. 검색)

14) 화학공업 생산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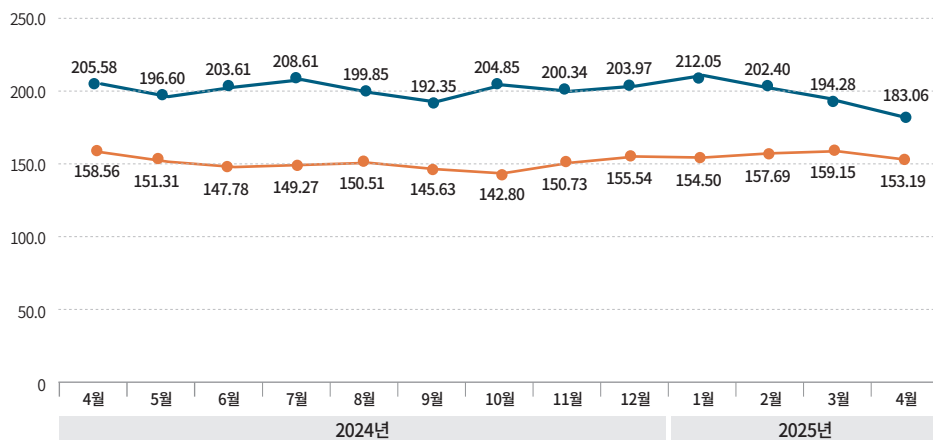
① '25년 4월 생산자물가지수, 나프타와 에틸렌 모두 하락

4월 나프타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5.8% 하락한 183.06p, 에틸렌은 전월 대비 3.7% 하락한 153.19p를 기록함

- 원유 정제를 통해 생산되는 나프타의 '25년 4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원유 가격이 1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동반 하락하고 있음
- 나프타 크래킹 등을 통해 생산되는 석유화학산업의 핵심원료인 에틸렌의 '25년 4월 생산자물가지수는 나프타 생산자물가지수 하락에도 3월까지 상승했으나 하락 전환함
- 그간 유가가 하락했으나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실질적인 하락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4월부터 달러 상승세가 꺾이고 하락하면서 생산자물가지수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임
-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와 불확실성으로 정유산업과 함께 전방산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 나프타
● 에틸렌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나프타	205.58	196.60	203.61	208.61	199.85	192.35	204.85	200.34	203.97	212.05	202.40	194.28	183.06	-5.8	-11.0	
에틸렌	158.56	151.31	147.78	149.27	150.51	145.63	142.80	150.73	155.54	154.50	157.69	159.15	153.19	-3.7	-3.4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12\(2025.05.23. 검색\)](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12(2025.05.23.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 중동의 석유화학 사업 영역 확장, 국내 기업에 위협⁵⁰⁾

중동이 석유화학 산업에 진출하면서 폴리염화비닐(PVC) 등 기초소재 시장에서 저가 공세를 강화하고 있어, 한국 석유화학 기업들이 중국에 이어 중동발 이중 압박에 직면하고 있음

- 카타르는 자국 최초로 연간 35만 톤 규모의 PVC 공장을 건설 중이며, 저렴한 원료 공급과 막강한 자본력을 기반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 PVC는 배관, 전자재, 자동차 부품 등 다방면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미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가격 하락세가 심화되고 있는 품목임
- 한국의 LG화학, 한화솔루션 등이 해당 시장에 진출해 있지만, 중동과 중국의 공세로 시장 점유율이 축소될 가능성이 큰 상황임
- '22년 이후 PVC 국제가격은 지속 하락 중이며, 향후 톤당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질 위험도 제기되고 있음

중동 국영 석유기업들은 국내에도 투자를 확대하면서 COTC 공정 등 첨단기술을 앞세운 생산설비를 구축하고 있어 정부와 업계의 고부가가치 및 저탄소 전환이 시급한 상황임

- 사우디 국영기업인 아람코가 최대주주인 에쓰오일은 울산에 원유공정에서 바로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첨단 공정기술인 COTC 기술이 적용된 '샤힌 프로젝트'를 '24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임
- 중동은 '90년대부터 석유화학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왔으며, 기초소재를 넘어 스페셜티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
- 글로벌 석유화학 업계는 저탄소 기술, 탄소포집저장(CCS), 블루수소 등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며, 전문가들은 정부가 저탄소 로드맵 수립, 세액공제 및 펀드 조성 등 인센티브를 통해 국내 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0) 디지털타임스(2025.05.13.),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5051402100132049001&ref=naver(2025.05.21. 검색)

3 청정수소 발전시장, 연료 공급자 시장 우위로 국내 발전사들 협상력 저하 우려⁵¹⁾

올해 청정수소발전 의무화제도(Clean Hydrogen Power Standard, CHPS) 2차 입찰에서 소수 외국기업이 암모니아 연료공급을 사실상 독점할 가능성이 커지며, 공급자 우위 시장 형성이 우려되고 있음

- 중동의 국영 석유기업인 A사는 지난해 약 120만 톤의 블루암모니아에 대해 청정수소 인증을 취득했으며, 그중 33만 톤은 이미 삼척 1호기에 공급될 예정임
- 국내 청정수소 생산은 제한적이며, 중동 지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청정수소 생산단가를 기반으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 CHPS는 청정수소 인증 공급사와 국내 발전사가 연계되는 방식으로, 인증 취득 여부가 시장 진입의 핵심 조건임
- 현재 A사 외에는 비슷한 가격과 물량을 제시할 수 있는 공급사가 거의 없어 발전사들의 협상력 약화가 우려됨

청정수소 연료공급 구조의 편중을 막기 위해 공급업체 다변화 조치가 필요함

- 업계는 수소 순도 등 청정수소 인증 기준을 완화하거나 CHPS 공고 물량을 늘리는 등의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함
- 현재 공급업체 풀이 너무 작는데, 커질수록 국내 발전사들이 협상 시 가격·조건 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음
- 올해 CHPS 사업은 환율 연계 정산, 물량 차입 제도 등 일부 제도 개선으로 리스크는 완화되었으나, 특정 기업의 영향력이 과도하다는 우려는 여전한 상황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1) 전기신문(2025.05.13.),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4699\(2025.05.21. 검색\)](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4699(2025.05.21. 검색))

연구책임자

최석우 항만수요분석연구실장

연구진

이기열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연구위원

신정훈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이나영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이화섭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조성현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조아현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최상균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감리

김근섭 항만연구본부장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발행일 2025년 5월 30일

편집·발행인 조정희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분석연구실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www.kmi.re.kr

TEL 051-797-4800 **FAX** 051-797-4810

편집디자인 크리커뮤니케이션 **TEL** 02-2273-1775